

##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요일 5:13-21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2000년에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김동환이라는 전도사가 쓴 책입니다. 이 김 전도사는 서울대를 그냥 졸업한 것이 아니라 특별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성적이 전부 A+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적으로 서울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그럴 때 그는 담담하게 말하기를 나는 평범한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라고 대답하면 그래도 뭔가 다른 게 있지 않겠느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김 전도사는 말하기를 단 한 가지 우리 집에 큰 원칙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밥 먹지 말라, 성경 읽지 않고는 공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어머니한테 많이 맞아서 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본 친구들이 물기를 “너는 공부도 잘 하는데 왜 맞느냐? 공부 잘하는 아들을 왜 엄마가 자꾸 때리느냐? 너의 엄마 계모지?” 김 전도사가 어머니에게 맞은 원인은 정한 시간에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못했기 때문이고, 정한 만큼 성경을 읽은 후에 공부해야 하는데 이걸 어졌기 때문에 호되게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전도사는 이러한 것을 신분주의적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목적을 정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뚜렷한 뜻과 확정된 목적이 있는 공부를 말합니다. 생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좋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지만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다고 거절했습니다. 모든 세상 유혹을 다 거절하고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지혜만 구했습니다. 다니엘처럼 살고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다니엘 학습법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런 글을 써 보내는 것은 다시 한 번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은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지식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 ‘토이’(C. H. Toy)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귀머거리가 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서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2.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 장 14 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3.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 장 22 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한 것은 무엇이든 다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죠지 물러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 기도에 즐겨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예수 믿은 지 54 년 9 개월 동안 믿고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두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4.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위해 한번 기도했는데 다시 또 그 기도를 해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66 편 18 절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어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으랴”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15 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H.G. 웰즈(Wells)가 쓴 “대주교의 죽음”(The death of an archbishop)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 대주교가 시간을 정하고 하루 3 번씩 습관적으로 성당에 들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뜻 밖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큰소리로 ‘오냐, 내가 여기서 듣고 있느니라. 무엇을 원하느냐’ 대주교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습관적으로 기도를 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대주교는 신음하듯이 중얼거리다가 벌렁 나자빠져 심장마비가 와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하고 평생토록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까 그만 놀라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16 절에 “만일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그를 위해

##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 한대섭 목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의 죄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부를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한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죄 중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죄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구별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가 죄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용서하고 안하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죄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21 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 버리십시오.”고 했습니다. 우상에 대한 경고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우상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집에는 신상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린 아브라함이 우상들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브라함은 도끼로 신상들을 부수고, 도끼를 제일 큰 신상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상들이 산산조각 난 것을 보고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신들에게 음식을 줌 갖다 드렸더니 신들이 서로 먹겠다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신이 작은 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말씀하시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어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신이 아니네요.” 그리고는 마지막 신상마저 부숴 버렸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할 교회에 도착하여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모두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옆에 있던 마귀가 말하기를 ‘저 아이만 기도를 안 하면 이 교회가 내 것인데’ 하더라 합니다. 부흥회 첫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온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었고, 그 후에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